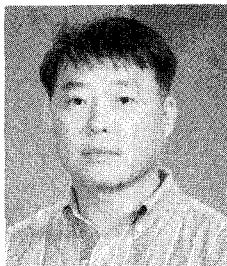


'97년도 상반기 국내젖소 종모우 도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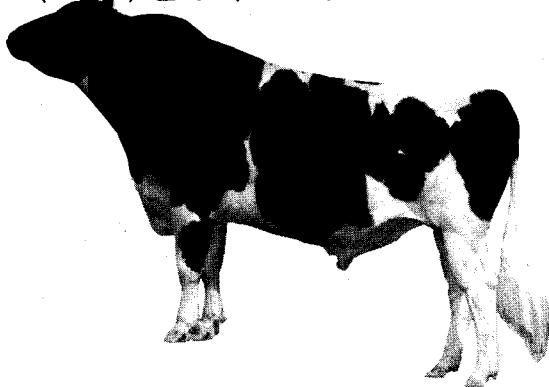
김 성 수

축협중앙회 개량사업본부 젖소개량부(이문성 부장)에서는 국내 젖소개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국내환경 및 암소 사육여건에 맞는 한국형 보증종모우를 선발하는 동시에 미국 및 카나다로부터 고능력종모우를 들여와 국내 낙농선진 실현에 지대한 공헌을 기해왔다.

금년에도 이미 한국형 보증종모우 1두(물푸레)를 선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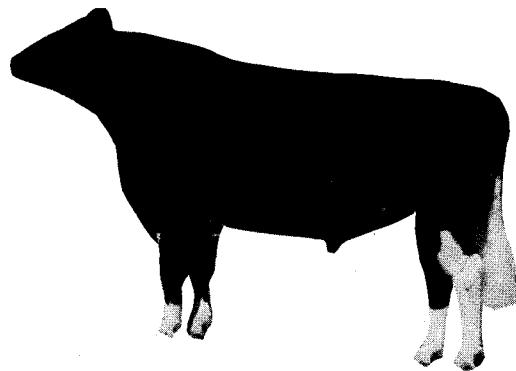
외국산 종모우 및 후보우들에 대한 미국 및 카나다 현지 검수를 다녀왔고, 4월초에 건국대 이 광전교수를 비롯한 8인의 도입확정심의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 도입우(종모우 4두, 후보우 3두)들이 6월 첫째주에 국립동물검역소 서울지소에서 검역을 완료하였고 현재 젖소개량부에 입식되어 정액 생산을 개시하였다.

〈그림 1〉 알렉스(H-266)



- 혈통 : 사우스윈드 SOUTHWIND(새로운 혈통)
- 종합지수(TPI) : +1292
- 유전능력(PTA)
 - 유량 : +537kg 유지량 : 14kg 체형 : +1.85
 - 발굽 및 다리 : +2.82
- 특장점 : 체형개량, 발굽 및 다리 미국전체 7위

〈그림 2〉 징글(H-267)



- 혈통 : 글로우 GLOW(새로운 혈통)
- 종합지수(TPI) : +1273
- 유전능력(PTA)
 - 유량 : +821kg 유지량 : 14kg 체형 : +2.02
- 특장점 : 유량, 유지량, 체형 미국 상위 5% 이내

도입된 검정우들의 능력을 개체별로 살펴보면 미국산 알렉스(H-266)는 '96년도 하반기 성적(TPI 1262)보다 '97 2월 종합지수가 30이나 올라 미국 전체 99위에 등재되는 등 성적이 계속 올라가는 종모우이고 미국에서는 우수한 혈통인 사우스윈드 혈통으로서 기존에 도입되었던 종모우의 혈통과 다른 새로운 혈통이다. 이 개체의 특징은 체형이 우수하며, 특히 발굽 및 다리가 미국 전체 종모우중 7위를 차지하는 우수한 종모우로서 스텐천 우사를 주로 이용하는 국내 사양 여건상 운동부족으로 인해 심각하게 발생될 수 있는 암소의 후구빈약 및 생산성 저하를 방지함으로써 생산수명을 연장 시킬 수 있는 개체이다.

미국산 징글(H-267)은 아주 어린 나이에 검정우로 선발된 종모우로서 생산형질, 특히 유량 및 유지량이 뛰어나며(TOP 5% 이내), 체형도 우수하여(TOP 5% 이내) 유량, 유지량, 체형이 훌륭하게 삼위일치되는 종모우이다. 유지량이 높으면서 많은 양의 우유를 생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모우를 사용할 경우 국내 개량방향과 일치되는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혈통인 GLOW 혈통이므로 근친 우려 놓기에 적합한 종모우이다.



〈그림 3〉 마이다스(H-268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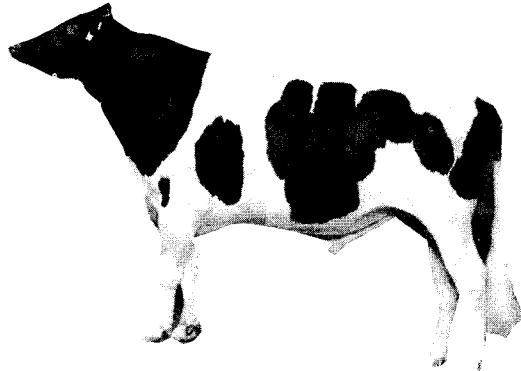


- 혈통 : 리드맨 LEADMAN(새로운 혈통)
- 생애수익지수(LPI) : + 1480
- 유전능력(PTA)
 - 유량 : + 723kg 유지량 : 28kg 체형 : + 7
- 특장점 : 유량, 유지량, 체형우수(유방계 상위 5%)

캐나다산 마이다스(H-268)는 생애수익지수(LPI, 1480)가 캐나다 전체 27위로서 생산능력(유량, 유지량) 및 체형이 우수하며, 특히 유방계가 상위 5% 이내에 등재되어 있어 유방개량에 적합한 종모우이다. 순산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임우에 사용하는데 적당하며 캐나다에서 우수한 혈통인 리드맨 혈통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.



〈그림 4〉 니콜라스(H-269)



- 혈통 : 리드맨 LEADMAN(새로운 혈통)
- 생애수익지수(LPI) : + 1415
- 유전능력(PTA)
 - 유량 : + 708kg 유지량 : 21kg 체형 : + 8
- 특장점 : 유량, 유지량, 체형우수(체형 상위 5%)

마지막으로 캐나다산 종모우인 니콜라스(H-269)는 생애수익지수(LPI, 1463)가 전체 37위로서 생산능력(유량, 유지량) 및 체형(TOP 5% 이내)이 우수하며 특히, 유용자질(뒷유방)이 뛰어난 종모우이다. 착유속도가 매우 빨라 착우작업의 성력화를 이룰 수 있으며, 또한 순산율로 매우 높기 때문에 초임우에도 적합하다. 이 종모우 또한 리드맨 혈통으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'97상반기 도입우 4두 모두 젖소개량부에 처음 보유하게 되는 혈통으로 국내 젖소개량에 더욱 활기를 불어 넣으며 양축농가들의 호응을 크게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